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아침이슬을 부른다

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았다. 김민기의 노래는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다. 금지곡이었고, 그는 갑자기 의문사를 당할 수도 있었다. 아학에서 노동자들을 무료로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도 잡혀가던 시절이다. 노래 아침이슬에는 '그의 시련'이 '나의 시련'으로 바뀌면서 노랫말이 터져 나오고 완성됐다고 한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준 문화의 든든한 배경, 김민기라는 거대한 못자리를 다시 보았다. 문화와 예술이 씩씩 튀고 자라고 결실을 맺고 생존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뒤에서 거대한 산이 되어준 김민기, 우리가 그 천재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나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다큐멘터리 '뫓뫓 김민기'를 보다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1987년 거리에 가득한 사람들이 목이 터지게 함겨 부르던 '아침이슬', 우리가 함께 외치던 '독재 타도!' 그리고 언어년 6월29일의 선언, 우리는 주권자가 됐다. 물론 부정선거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돼 좌절했지만, 우리는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아침이슬은 노래로 그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금지곡이었던 그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친구', 노동자의 끔찍하고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만든 노래 '공장의 불빛', 노동자 부부의 축가로 만들어진 '상록수' 마음을 쓸어주는 서정성과 세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긴 노래들을 올해 5월에는 불러야겠다.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렇게 가사와 노래가 만들어졌고 그 노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노동자들 서럽고 힘든 사람들의 억압된 가슴을 뚫고 나와 광장에서 거리에서 한목소리로 울분히 회열이 되어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다. 역사의 한복판에 이 노래가 있었다.

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오 그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 앞에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 흘날리는 꽃잎 위에 아른거리오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러나

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노랫말을 음미하며 깊은 고요에서 나와 흥얼거리는 친구라는 노래가 광주의 5월에 스며든다.

김민기는 아산에 묘지가 보이는 수유리의 반지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막히면 노래를 짓고, 노래가 막히면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던 젊은 시절, 아침이슬은 탄생했다. 자신의 경험을 노랫말로 곡을 붙이면, 그 노래는 모두의 경험으로 확장됐다.

당시 독재자 박정희는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누구나 감금하고 누구나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았다.

문화난장



이현  
아동문학가

어머니가 그림다

로 엄마가 되었다는 건, 처음으로 초등학교가 되어 학교에 입학하는 기분이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고 벽찬 만금이나 잘 할 수 있을지, 서툴러 실수하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 시간이 될 때마다 서점에 들러, 육아서적을 구입해 읽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손가락 끝에 힘 쥐 밀줄까지 그으며 읽고 또 읽었지만, 막상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많지 않았다. 이 세상 아이들이 모두 다 세상에 딱 한 명뿐인 아이들인 만큼이나, 다들 수밖에 없는 각각의 상황에서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선택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조마조마, 생각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필자의 어머니에게 받았던 긍정의 마음과 따뜻한 감성들을 아이에게 온전히 돌려주면 될 것 같았다. 부모님이 나를 믿고 기다려준 것처럼, 필자 또한 아이들을 믿으며 기다려주고 싶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엄마는 네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정의 달 오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은 무엇일까. 지난달, 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가 생각하는 행복 조건의 1위는 '화목한 가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행복 조건으로 '화목한 가족'을 꼽은 응답률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29%), '몸이 건강한 것'(14%)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은 무엇일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파스해지는 화목한 가족, 친구, 동료가 있음이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내 편이 있음은, 또 다시 일어나 날아가게 하는 힘이며 응원이기도...

"고맙다 상추야. 미안하다, 잘 먹을까." 어머니는 어린 상추잎을 뜯을 때마다 상추에게 말을 건네곤 하셨다. 아직은 햇살도 받고 바람도 맞으며 쭈욱쭈욱 자라야 하는데 아이들 먹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뜯어야 한다며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곤 하셨다. 마당 한쪽에 만들어 놓은 작은 텃밭에서 오이와 고추를 따고 빨강게 익은 토마토 몇 알을 딸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웃음과 함께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놓치지 않았다. 암탉이 낳은 알을 꺼내올 때도 조심조심, 낚아채듯 속 집어 오면 안 된다고 하셨다. 덕분에 맛있는 후라이와 고소한 마요네즈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꺼내오라고 하셨다. "꼬꼬 닭아 고마워, 달걀 잘 먹을까." 어머니 덕분에 고맙고 감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응에, 응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을 때, 필자 또한 어머니에게 받은 만큼이나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처음으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농촌이 고행하고 시대에 적응 못하고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면서 농촌 마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우리의 어버이들이 공경과 보호의 시각적대에 놓이고 있다. 옛날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을 60대~70대 나이는 이제 젊은이 속에 속할 정도이니 현 농촌의 실태를 알만하다.

"진달래꽃 보러 가시게요!" 어머니가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다.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도 곱나?"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소녀 감성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였기에,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띄우며 좋아하실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구경을 헤드리는 마음으로 진달래꽃이 만발한 언덕 근처에 식당을 잡아 식사를 한 다음, 꽃구경을 가지는 말에

독자투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농촌이 고행하고 시대에 적응 못하고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면서 농촌 마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우리의 어버이들이 공경과 보호의 시각적대에 놓이고 있다. 옛날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을 60대~70대 나이는 이제 젊은이 속에 속할 정도이니 현 농촌의 실태를 알만하다.

그나마 부부가 같이 살고있는 가정은 사정이 나은편이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기정 사실이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가정의 달은 무척이나 힘들고 쓸쓸한 날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 있지만 사회의 무관심속에 선택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쓸쓸히 노년을 맞고있는 노인들도 많은 실정이다.

가정의 달,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 없길...

늘어나면서 혼자 살다 외롭게 죽는 사건은 이제 새삼스런 뉴스도 아닌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교적 지역공동체 의식과 유대가 강한 농어촌에서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고행화로 접어들면서 부양기피와 학대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마땅히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결코 아닐 것이다.

인가. 우리 주변의 홀로사는 노인들을 찾아 한번쯤 이들을 찾아가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건네며 안부를 살피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다면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홀로사는 노인들은 단지 마주앉아 자신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을 더욱 바란다. 그만큼 이들 홀로사는 노인분들은 외로웠던 것이다. 이번 어버이날을 즈음해 우리 부모님과 동네에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을 찾아 안부를 물어보고 말동무가 되어드리자. 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듯, 주변의 혼자 사는 노인을 보살피고 챙겨 홀로 안타깝게 쓸쓸히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없기를 기원해본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꽤 막힌 전남 현안 물꼬 트도록 정치권도 힘 보태라

전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적기에 신속 추진해 전체 의료체계 완결성을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켰다.

도 무안-몽골 울란바토르, 제주 정기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노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힘에 부친다. 2025년 KTX 경유 등으로 기회를 맞는 가운데 광주 군·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에 주력해야 하지만 군공항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다.

의대 유치를 위해 김영록 지사와 목포대·순천대 총장, 목포시장·순천시장 간 5자 회동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전남도는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기존 용역 결과에 대해 요약본을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단독 공모 방식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순천권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30년 만에 가시화된 전남 의대 설립이 자칫 실기(失期)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이는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전남의 소멸 위력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산 협의회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도 요청했다. 비교우위 위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전남도는 미래 100년 행복시대 조성을 위해 22대 국회와 긴밀한 소통, 결속을 다짐했다. 해서 역점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무안공항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무안-제주 정기노선을 재취항한데 이어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

정치권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으로 구체 실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말 뿐이 아닌 실질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 지역 회생의 소명을 다해줄필 바란다.

교통난 해소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공정 관리 최선을

광주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과정에서 도로 전체 차로 중 절반을 점용당하고, 남은 차로 구간마저 잦은 변경에 따라 불편을 호소해 왔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71%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중 일부 지상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어서 희소식이 되는 것이다.

029년 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정 등을 경유하는 20km 구간으로 도심을 연결한다. 3단계인 백운광장-진월-호천역 4.8km는 예산난으로 사실상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 시민들은 광주시가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고무줄 공기에 따른 불만도 크다.

1단계는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에 이르는 17km로 저심도 개착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로를 굴착해 지하에 구조물과 정거장을 짓고 흙을 메운 뒤 복공판을 설치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복공판을 해제하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40%, 하반기엔 나머지 60% 구간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면 내년 초 지상 도로가 모두 정상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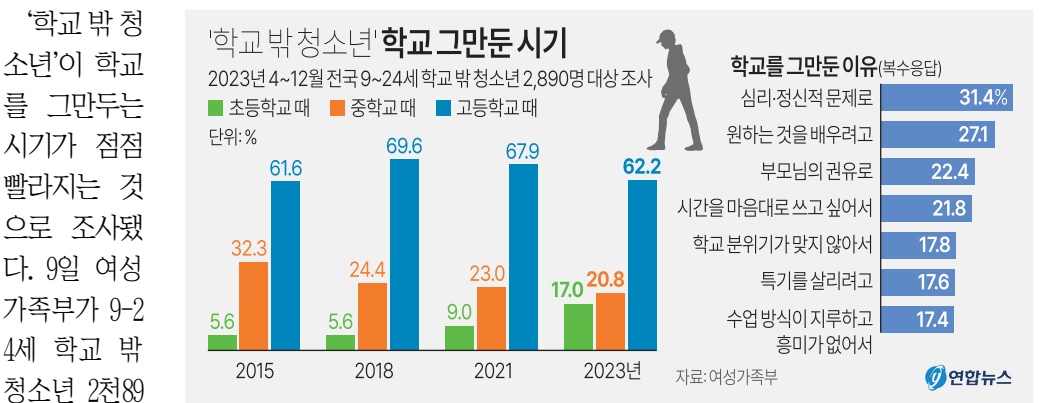
2호선 총 연장은 41.8km로 정거장 44개소가 건설되며,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도입되는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이다. 2004년 4월부터 운영 중인 1호선과 연계,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편이가 대폭 향상되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게 된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철도다. 친환경 대중교통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돼 곳곳을 보다 편리하게 누비길 바라고 있다.

2019년 9월 착공했으며, 5년째다.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에 따라 정상 개통이 3년 정도 지연됐다. 2023년 12월 착공한 2단계 역시 지체돼 2

광주시는 계획대로 주요 도로를 다시 포장, 복구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 우회하고 서행하는 등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학교 밖 청소년' 점점 어려워진다...83% "검정고시 준비"



로 실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였다. 고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비율은 2015년 61.6%, 2018년 69.6%를 기록한 뒤 2021년 조사 때는 67.9%, 2023년 62.2%로 점점 줄었다. 중학교 때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도 2015년 32.3%를 보인 이후 2018년 24.4%, 2021년 23.0%, 2023년 20.8%로 그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2015년과 2018년 각각 5.6%에 불과했으나 2021년 9.0%, 2023년 17.0%로 5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보면 고교 때 중단한 청소년들은 '심리·정신적문제'(3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83.2%·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진로상담(37.8%), 심리상담·정신과 치료(34.7%), 직업 기술(29.8%), 대안학교(29.6%) 등의 순이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2018년 75.5%, 2021년 78.9%, 2023년 83.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